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제194호

충청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 | 전화 (043)220-5123 | <http://assem.cb21.net> (2009년 2월)

아직도

시인 이 정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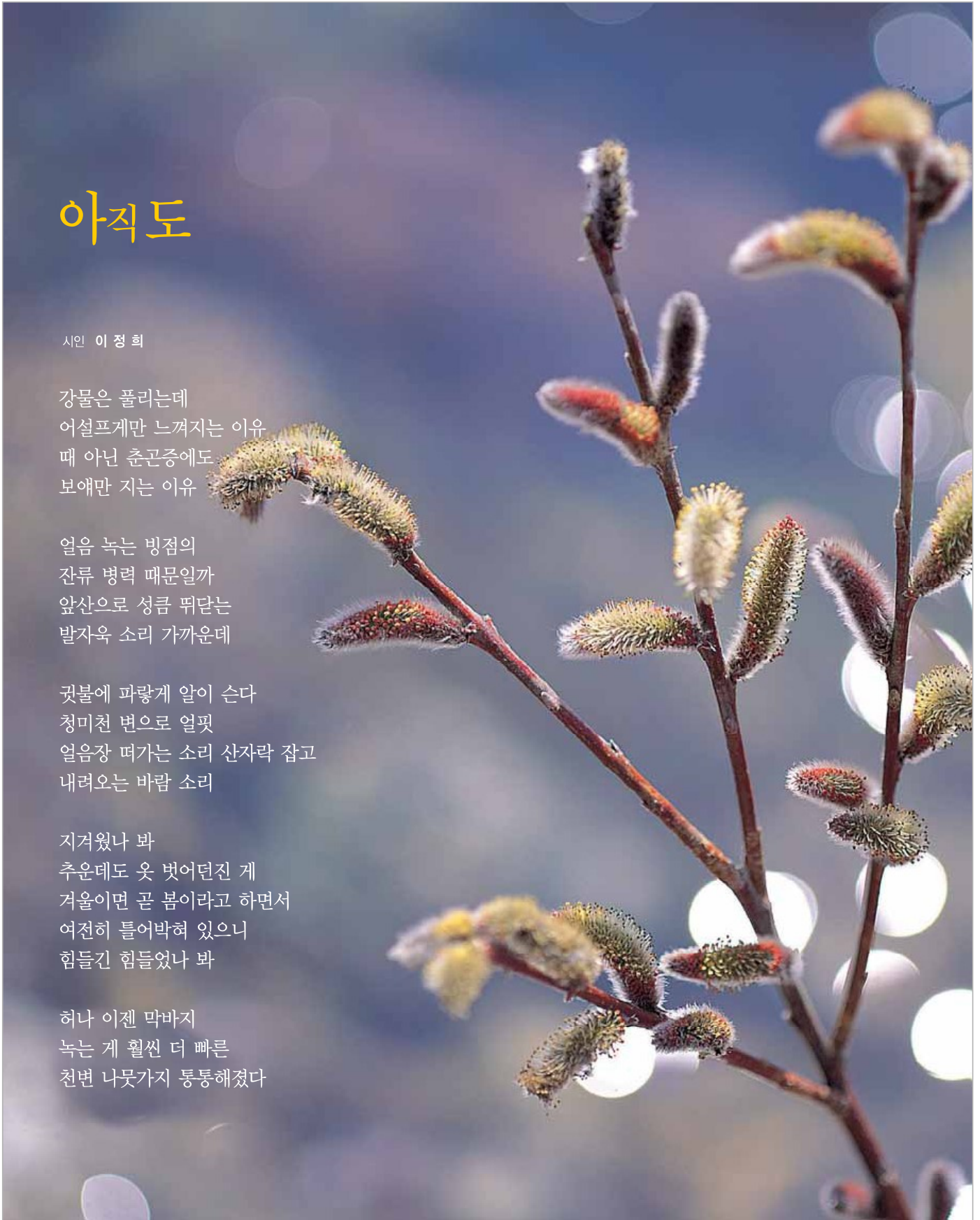
강물은 풀리는데
어설피게만 느껴지는 이유
때 아닌 춘곤증에도
보애만 지는 이유

얼음 녹는 빙점의
잔류 병력 때문일까
앞산으로 성큼 뛰닫는
발자국 소리 가까운데

꽃불에 파랗게 알이 스다
청미천 변으로 얼핏
얼음장 떠가는 소리 산자락 잡고
내려오는 바람 소리

지겨웠나 봐
추운데도 옷 벗어던진 게
겨울이면 곧 봄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틀어박혀 있으니
힘들긴 힘들었나 봐

허나 이젠 막바지
녹는 게 훨씬 더 빠른
천변 나뭇가지 통통해졌다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 도정 질문 계획 등 현안 심의 -

제277회 (임시회)

충청북도의회는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제277회(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농촌진흥원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현안을 처리하며 2009년도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날 임시회에 앞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제278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계획과 경제특별도 충북 2주년 기념식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개회 둘째 날부터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북 개발공사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 충청

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청북도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도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도정질문 및 2009년도 의정활동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경제특별도 충북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78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내

일시	부 의 안 건
3. 17 (14:00)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9. 3. 17. ~ 3. 27. (11일간) 2.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3.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4. 기타안건 처리
3. 18 (10:30)	● 제2차 본회의 ·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경제위원회
3. 19 (10:30)	● 제3차 본회의 ·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 건설문화위원회 - 행정소방위원회
3. 20 ~ 3. 26	● 본회의 휴회 ·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 -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 기타 안건 처리
3. 27	● 제4차 본회의 1. 부의안건 처리 2. 기타안건 처리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계획

의회운영위원회	·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 주요안건처리
행정소방위원회	·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 ·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현안처리
교육사회위원회	·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 ·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현안처리
산업경제위원회	·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 ·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출자·출연기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건설문화위원회	·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 · 충청북도 경관조례안,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심사 ·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5분 자유발언

수도권규제 완화 철회 없이 충북의 미래는 없다



김광수 의원
(교육사회·청주 제1)

니다.

경제살리자라는 명분하에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양초에 부딪혀 경제특별도를 향한 충청북도호가 순항을 하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발전에 대한 대책없이 합리화,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지방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렸고, 현재는 사형선고를 집행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12월 15일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는 허울뿐인 종합대책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지방발전종합대책은 양립할 수 없으며 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는 방법뿐입니다.

충북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없이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는 한낱 허사일 뿐이며 충북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는 현실을 직시하고 도민의 장래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위하여 나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며,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닙니다. 앉아서 기다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모든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충북도민의 요구 앞에 뚝고 투쟁해야 합니다.



이기동 의원
(건설문화·음성 제1)

가 묻히면서 기업체가 오기는 커녕 기존의 공장마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으며, 지역건설업체도 10년전 외환위기에 못지 않은 만큼 모진 시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불굴의 의지로 난국타개에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우선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충북도의 현안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도 시작은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렵게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규제완화 발표 이후 충청권의 모든 호재가 묻히면서 기업체가 오기는 커녕 기존의 공장마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으며, 지역건설업체도 10년전 외환위기에 못지 않은 만큼 모진 시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불굴의 의지로 난국타개에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우선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충북도의 현안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에서 그 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내륙첨단산업벨트 추가 설정',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음성~충주·강원권을 잇는 대규모 공사 사업비만 5조 4천 500여억원이 투자되는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등 현안사업이 반영된 것은 155만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은 큰 성과이며, 금년도에도 '침단의료복합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 프로젝트 정책사업이 우리 도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큰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유치하고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의회에서도 적극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며, 우리 전체의 원들이 건의와 호소 등을 위하여 청와대는 물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 협조에 나서 줄 것을 의장님께 간곡히 건의드리시는 바랍니다.

괴산 산업단지 관련 감사 촉구



민경한 의원
(산업경제·제천 제2)

하지 않아 (주)진로가 부당하게 농지를 소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복구비용 예치규정 위반으로 복구비용을 면제시켜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행정행위와 법의 집행은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괴산군 발전을 위해 유지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독질을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고 그 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감사를 통해 괴산군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고, 그 후 도을 일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미국 발 Sub-Prime Mortgage Rate로 인한 금융위기로 서민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습니다.

즉, '창업은 좋고, 부도는 늘고, 실업자는 증가하며 자영업자는 더 힘들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경기침체 심화로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조조정 1순위로 거론되는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둘째, 통화 유통 상품인 '키코(KIKO)'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셋째, 현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

넷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서민금융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예산집중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대책 요구

의회운영위원회

금년도 선정된 역점과제 적극추진 당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영복)는 1월 13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7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의결하고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였다.

제1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사한 「제27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3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으며, 3월 18·19일에는 각각 2·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18·19일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는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실현을 위하여 의정운영 기본방향을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의정 실현,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의회상 정립,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의회,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회구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수준 높은



▲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현안협의

의정활동지원, 효율적인 회기 운영 및 도정진단, 도민을 위한 열린 의정실현,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의정활동 홍보 강화,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규사업 발굴이나 기존사업 확대·정비 시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의 방 운영,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운영, 홈페이지 개발, 의회운영 매뉴얼 제작,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제 시행 및 지방의회 공무원 워크숍 실시' 등을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보고 내용을 청취하고 차질 없는 계획 추진을 당부하였다.

행정소방위원회

4대강 살리기 등 녹색 뉴딜사업의 철저한 준비 촉구



▲ 2009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연만흡)는 2009년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충북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추천의 건,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충청북도가 종합적 조정자 역할을

해줄 것,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대책 수립 및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 유재산의 적기 매각을 당부하였다.

이어 도와 시·군간 공무원의 인사 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증진 및 업무능력이 함양되도록 탄력적 운영방안 마련, 도정홍보관이 홍보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시책을 강구하고 도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충북개발공사는 설립 후 수익창출 없이 투자만 되고 재무구조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영의 체질개선과 투명성을 높여 도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실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1995년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출된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법규문서 체계의 일관성 및 명확한 용어 표현을 위해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지난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충북개발공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타당성 및 출자에 따른 활용계획 등 보충자료 제출과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된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안 심사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약 3조 9,500억원에 수주한 제2산업단지 등 7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며 충청북도 재정상 현물출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밀레니엄타운 조성 예정지를 현물출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밀레니엄타운 조성 예정지를 대체하여 현물출자 할 만한 대단위 도유재산이 없고 경제특별도 건설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수주한 7개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저소득층 지원대책 마련 등 사회안전망 구축 주문



▲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현지확인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임 현)는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현안을

심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충청북도 소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문하는 등 도민의 생활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현장중심행정을 펼쳐 도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에 앞장서 주길 당부했다. 이어 실시된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는 최근 경제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부문에서도 이러한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신뢰성 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주문했다.

또한, 교육위원의 의정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학년도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신설과 교명변경사항 등을 개정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상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 연관성이 없는 다른 조례의 기구개편사항을 개정함이 조례개정의 한계를 벗어나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산업경제위원회

경제위기 극복위한 일자리 창출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갑)는 회기중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이영복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제안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먼저 1월 19일 실시된 경제통상국 업무보고에서는 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악화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소액대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홍보대책을 강화하고, 태생국가산업단지의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하류지역에 피해 없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과, 중앙정부에서 진행예정인 첨단전략산업의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신재생에너지 발굴을 통한 사업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산업단지 입지 조성시 도로와 기간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기업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

리할 수 있는 여건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1월 20일 실시된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 업무보고에서는 한우 광역브랜드와 사업 중 '청풍명월 한우'가 시·군 지자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와 시·군의 자체 브랜드로 인해 경쟁력이 낮는데 이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명품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시설 확충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명품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당부 하였으며, 올 도정 10대 현안사업 중 '농업명품도' 건설을 위한 농업분야의 현안사업이 배제된 이유와 '농업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의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의 적극 활용, FTA에 따라 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방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우위 전략과 임



▲ 농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산물 등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자세를 당부하였다.

또한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국산 농산물이 중국산 및 미국산 등 외국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유

통단계에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는 획기적인 유통망 구축과 새로운 계획으로 도내의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건설문화위원회

건설경기 활성화로 서민경제 안정화 시켜야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이언구)는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건축법 개정과 건축위원회 인원을 증원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오용식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건설사업의 선급금 지급 시 수주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재난정보 실시간 휴대폰 문자전송 대상 확대 실시와 객관성 있는 자가행정확보를 위한 토지특성 알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 확대 실시와 청주·청원지역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도내 각 시·군으로 확대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유서 깊은 수안보 온천이 전국 보양온천지정계획 선정에서 제외된 점을 질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새롭



▲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

게 추진하고 있는 전통온천 지정에 수안보 온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으며, 청남대에 새로운 볼거리가 조성되어 충북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였다.

또한 교육과 연계된 균형정책의 추진을 강조하고

청주·청원뿐 아니라 타 시·군에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양극화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고,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특별도 건설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였다.

의원칼럼



박영웅
(산업경제·옥천2)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 전 세계가 앞 다투어 산업화에 매진하는 동안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은 급증하여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였고 그 결과 기상패턴이 급변하는 기후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대형홍수와 가뭄, 지진, 쓰나미 등이

해수면이 상승, 국토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이며 주민들은 인류 최초로 환경난민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인간의 이기심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온난화로 생태계 변화가 걱정됨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재

사하는 이들에게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걱정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회요인이 무엇인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온난화에 따른 시설난방비의 절감과 벼 2기작재배, 아열대 작물 도입 방안 등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생각되며 이들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미래의 블루오션을 적극 개척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난지농업연구소를 설립하여 다양한 아열대 식물을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여기서 얻은 실험결과를 농가의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기후온난화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적인 것으로 세부적으로 우리 도와 지역별 현실에 맞고 적합한 그리고 특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농업인과 농업에 관계된 모든 기관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구온난화 극복 위한 지역별 작물지도 시급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겨울은 농민들에게 다음해 농사 준비를 위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며 아이들에게는 새하얀 눈을 내려춤으로써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놀이를 통해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최근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인공의 썰매장이나 실내스케이팅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겨울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몇 십 년 아니 몇 년 후에는 한반도의 겨울을 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국토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그 중에서 지구상에서 맨 처음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한 나라가 있다. 바로 투발루(Tuvalu)라는 국가이다.

투발루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로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섬나라인데 2001년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국토 포기를 선언했다. 최고점 해발이 4m로

배되던 한라봉이 이제는 전남 고흥과 경남 거제에서도 생산되고 있으며, 사과 재배지역이 대구에서 충주를 거쳐 이제는 강원도 영월에서도 가능해졌고 이러한 현상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로 농작물재배 지도(地圖)가 복잡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여 농민들의 근심도 늘어가고 있다. 2006년 옥천과 영동지역에 나타난 갈색여치와 작년 청주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주홍날개꽃매미가 바로 이것으로 이들 해충은 농업에 중

주요처리의안

◎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 위원회 관련 법령 정비 및 추가
- 위원회 기능에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심의사항 추가
-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부위원장 임무
- 회의, 안전배부, 실무위원회, 의견청취 등
-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추가출자계획

- 우리도 소유재산 중 밀레니엄타운내 도유재산을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으로 추가출자
- 추가출자 (토지분) : 76,946,734천원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 교육위원회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850,000원에서 월2,180,000원으로 함
- 별표1(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비고란의 제3호 규정을 신설함 : 원격지 여비지급 가능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삭제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 산정 시 제한규정 삭제
-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 시 감액비율확대
-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변경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

- 2009학년도 신설 :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각 1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 교명변경 : 진천농공고등학교 →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 학교주소변경 : 유치원 8개원,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 통·폐합 및 폐지 : 병설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분교장 4개교, 중학교분교장 1개교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개정

- 관련 법의 조문명확화
- 기금의 일부 관리 주체 현실화 및 존속기한 명시
- 지원 기금운용 관련 일부 자구 수정
- 위원회 구성 명확화, 위촉직 위원 추천 주체 및 추천인원수 명확화
-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직위 명칭변경
- 기금관리 계획 및 결산주체의 명확화

◎ 충청북도 건축조례 개정

- 건축위원회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증원하여 건축과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위원회 심의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함
-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률조문 개정
-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간사 및 서기 등의 인원의 표기방법을 "인"에서 "명"으로 개정
- 직제개편으로 건축팀을 건축디자인과로 명칭변경



법률상식

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할 수 있나?

문의 저는 甲소유 단독주택을 8천 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백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저의 남편의 반대로 다음 날 오전 甲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청주시 모충동 K씨)

답변

계약은 성립시부터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이 미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 민법 제 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의 수수(授受)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도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하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 성립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반환받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문의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에 관하여 상속인인 망 甲의 아들 乙,丙,丁 3인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충주시 교현동 L씨)

답변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관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

망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관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66.9.20.선고 65다2319판결, 1992.8.18.선고 92다2998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공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청주지법검찰청 민원실내 1,2층)
- 전화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건강
상식

뇌졸중의 증상 및 예방법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중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을 차지할 뿐 아니라(200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간 10만명 당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는 75.5명입니다.)

성인에서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장애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된다.

주로 노인질환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30 40대에도 흔히 발병하는데, 이는 생활습관의 변화와 운동부족으로 인해 뇌졸중의 주원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의 발생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 5가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이기 어렵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어진다. 한쪽 눈이나 또는 양쪽 눈 모두 흐리게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남의 말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머리가 갑자기 번개나 망치로 맞

은 듯이 심하게 아프다. 물체가 이종으로 보이거나 어지러워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린다. 특히, 위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7가지 수칙혈압을 관리하라.

-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정상보다 발생비율이 3~4배나 높다.
- 담배를 끊어라.
- 뇌졸중 발생비율은 5년 금연하면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하다.
- 술을 끊어라.
- 매일 7잔이상 마시면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
- 과체중을 조심하라.
- 비만인 사람은 정상인 보다 2~3배 뇌졸중 위험이 높다.
- 운동하라.
- 매일 30분이상 운동한 사람은 뇌졸중 발생률이 2.7배 낮다.
- 야채와 생선을 많이 섭취하라.
- 뇌졸중 발생비율이 무려 3분의 2 가

량이 줄어든다.

- 몸을 따뜻하게 하라.
- 추운 겨울날 외출할 때 따뜻하게 챙겨입고 나가야 한다.

뇌졸중의 올바른 대처방법

● 1단계 : 예방

- 고혈압, 흡연, 비만, 당뇨, 부정맥, 과음, 스트레스 등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혈압약을 매일 복용하고 운동, 식이요법 등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 2단계 : 이송

- 언어장애, 시야장애, 걸음걸이 이상, 어지럼증, 매스꺼움과 구토, 두통, 복시(두 눈을 뜨고 한 물체를 보았을 때 겹치거나 둘로 보임),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거나 신체 한 쪽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등 뇌졸중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 발생 3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 치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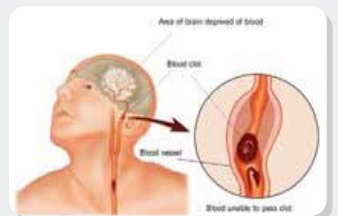
● 3단계 : 진단 CT 나 MRI 검사를 통해 병변과 뇌혈관이 터졌는지 막혔는지 확인한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치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최근 MRI 영상 기술의 발달로 뇌병변의 크기와 부위뿐 아니라 치료 예후도 평가할 수 있다.

● 4단계 : 치료

- 뇌경색의 경우 발병 3시간 이내라면 혈전용해제 투약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너무 심한 뇌경색이나 시간이 지연된 경우 오히려 뇌출혈을 동반할 수도 있으므로 뇌졸중 전문가의 치료와 경과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혈전제를 반드시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며,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혈관에 동맥류가 있으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공단 청주지부



창간
객담

붕어빵 구워내는 빵틀 교육

수제들로만 구성된 집단에서도 쫄쫄하고 있는데 반면 수제들만의 집단에서도 일등은 있게 마련이다. 그런가 하면 지능지수 150인 수제와 80의 문제가 겨워서 문제가 수제를 이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수제와 평제, 문제를 구분하는 잣대가 무엇이고 겨루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일등과 쫄쫄, 승자와 패자의 주인공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 가지 잣대만을 가지고 수제와 문제, 일등과 쫄쫄,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 공부라는 것, 성적이라는 것이 그 획일적인 잣대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좌우할 등수를 먹고 합격과 불합격, 합격자와 낙오자를 갈라놓는다.

그래서 학교라는 곳이 붕어빵을 찍어내는 빵틀이 되었다. 초등학교를 빼고는 진학 때 마다 입시라는 걸 치러야하고 그 입시의 성패가 획일적으로 치러지는 시험답안지에 찍혀 나오는 성적으로 판가를 내니 학교인들 빵틀이 안 되고는 견디낼 재간이 없다.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하려면 거기 세워

놓은 성적 잣대에 킴 대고 그 높낮이에 따라 통과 여부가 판가를 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칭찬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칭찬하고 평가하는 것을 남보다 키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 마련이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다 보니 학생도 학교도 거기 맞춰서 붕어빵이 되고 빵틀이 될 수밖에 없다

재능의 조기발견, 특기적성 교육, 개성신장, 수월성교육은 사실상 공교육에 들어설 틈이 없다. 장차 정치가를 꿈꾸는 학생이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 혹은 음악가나 미술가, 아니면 축구선수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라도 빵틀 속에 집어넣고 똑같이 구워내야 한다. 오로지 입시정적이 좋아야 하니 학교도 교사도 학생, 학부모도 그 획일적인 잣대의 눈금 한 칸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선 여쭙 수 없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획일적인 건 당연한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내 자식 일등이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자녀들을 사교육기관으로 내몬다. 그리고는 엄청난 사교육비에 등골이 췌다.

그렇다고 경쟁을 하지 말라는 건 물에

빠진 양반에게 개해업치지 말고 체통 지키라는 주문과 다름없는 일이다. 경쟁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고 경쟁을 회피하는 개인은 도태 될 뿐이다. 학교교육에서도 입시에서도 경쟁은 있어야하고 그 방법을 또한 배워야 한다.

다만 경쟁방법과 평가의 잣대를 다양화함으로써 취미와 소질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희망학교를 선택, 동류집단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미술가를 꿈꾸는 학생이라도 수능성적이 낮으면 그림 실력이 형편없는 학생에게 밀리고 좌절하게 마련인 것이 현재의 입시제도다. 실기평가라는 것이 있어도 그 반영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렵게 시작한 대학교육도 빵틀교육의 연장일 뿐이다.

수능성적은 말 그대로 상급학교에서의 수학 가능성 여부를 가리는 기초능력의 관별에 그치지도록 그 곤란도를 낮추면 어떤가? 그 대신 대학별 학과별 전공 관련교과의 비중을 높인다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경감될 뿐 아니라 재능의 조기발견은 물론, 그 재능의 신장을 위한 수월성교육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학교교육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가

지 전과목 과외를 위해 여러 곳 학원을 전전하는 학생들의 고달픈 방랑도, 학부모들의 등골 휘는 사교육비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물론 현재보다 소인수확집권성, 지도교사의 증원, 학습시설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할 일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의 절반만 공교육비로 전환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내 아이' 하나만을 위해 지출되는 사교육비의 절반을, 전학부모가 공동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공교육비로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경쟁의 다양화, 잣대의 다양화다. 그리고 '내 아이만'을 위한 학부모들의 이기심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의 식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올해도 빵틀로 구워낸 5십여만 명의 붕어빵이 대학을 졸업한다. 그중에 취업에 성공한 인재들도 기업과 사회현장에 적응 능력을 갖춘 일꾼으로 만들자면 직장별 기능별 재교육을 실시, 다시 구워내야 한다. 이제껏 받아온 빵틀교육이 현장에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재양성 비용의 이중지출에 과지출이요, 엄청난 국력낭비다. 그러고도 세계적 인재배출은 요원하니, 빵틀교육의 개선은 시급하다.

(安秀吉 - 소설가)

의원동정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1월 2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각계 인사들과 도정 발전방안 모색



▶ **이범운 의원**
(단양 제2선거구)

1월 22일 단양군 영춘면에서 열린 군정보고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수렴



▶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1월 21일 옥천군 이원농협에서 열린 이원농업협동조합 결산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수렴



▶ **김화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1월 중 단양군 일원에서 여성단체협의회장 및 지역사회 민간단체장이 취임식에 참석, 간담회 및 애로사항 청취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1월 30일 음성군 감곡농협에서 실시된 제48기 감곡농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수렴



▶ **이중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1월 22일과 30일 각각 송학면과 서부영천동에서 열린 시장연두순방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1월 7일 진천군 축산농협협동조합에서 열린 축산인 신년하례회에 축협 이사로 참석, 단합기원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1월 21일 괴산군 청천면사무소에서 열린 청천여성농소방대장이 취임식에 참석,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축사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1월 21일 진천군 진천읍 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 참석, 도민 안보의식 계도 당부 및 관계자 격려



▶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1월 18일 아름다운가게 나눔파리 행사를 주관하고, 관계자 및 행사참가자 격려



▶ **심흥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1월 중 충주시 읍면동지역을 순회·방문하여 금융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일자리 창출 등 현안에 대한 논의 및 여론수렴



▶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1월 15일 옥천군 다목적화관에서 열린 옥천여성농소방대장이 취임식에 참석,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축사



▶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1월 17일~18일 영동군 방백등반장에서 열린 제2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방백등반대회에 참석, 스포츠를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 **최광욱 의원**
(한나라당)

2월 12일 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이사회 신년웃놀이에 참석, 관계자 및 행사참석자 격려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1월 30일 보은군 수한농협에서 열린 수한농협협동조합 정기총회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이기동 의원**
(음성 제1선거구)

1월 29일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음성군 농업경영인회장 취임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주민 의견수렴



▶ **연만희 의원**
(중평 제2선거구)

1월 29일 중평군 도안면에서 열린 연암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기관단체장 30여명과 함께 지역발전 방안 토론



▶ **최재욱 의원**
(중평 제1선거구)

1월 29일 중평군 중평읍 새마을회관에서 열린 중평군 새마을 정기총회를 주관, 관계자 및 행사참가자 격려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1월 19일 청원군 오창읍사무소에서 열린 새해설계 영농교육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수렴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1월 22일 충청대학에서 열린 청원 사랑포럼 창립총회와 관내 이장단회의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주민 의견수렴



▶ **강태원 의원**
(한나라당)

1월 10일 충청북도생물체육협의회검도연합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12개시·군 회장·사무국장 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임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1월 20일 영동군 양산면에서 열린 농촌개발사업 설명회에 참석, 관계자 및 행사참가자 격려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1월 9일 청주 매직프라자에서 열린 충북대학교 총 동문 신년회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이언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1월 중 충주시 읍면동 순회 신년업무보고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주민과의 대화



▶ **김한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1월 22일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09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농업발전방안 토론



▶ **최미애 의원**
(민주당)

2월 5일 청주시 북문로정식컨벤션센터아에서 열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수렴



▶ **민경환 의원**
(제천 제2선거구)

2월 8일 제천시 청전동솔밭죽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한마당 민속놀이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수렴



▶ **김범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2월 3일 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관련 국회 방문, 홍재형 의원 발의 특별법 개정안 원안통과 협조요청



▶ **김광수 의원**
(청주 제1선거구)

2월 1일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열린 MB악법,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쟁기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수렴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1월 24일 보은군 속리산면 해주타운에서 열린 국립공원구역계획변경주민토론회에 참석, 실무진 구성 및 향후 추진 역할분담

